

원희룡 장관 “국민의 눈높이에서 촘촘하고 든든한 상담 서비스” 당부

- 30일 LH 주거복지정보(주) 찾아 상담 내용 실시간 청취
- 이어진 상담직원 간담회에서 고충·애로사항 듣고 적극 검토키로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30일(목) 오후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LH 주거복지정보(주)* 사무실 상담 현장을 방문하여 국민들의 주거 불편 사항을 실시간으로 청취하였다.

* '18년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자회사로 4개의 LH 상담센터(마이홈콜센터, 바로처리센터, 전세임대센터, 주택지원센터)를 운영 중

○ 이어, 상담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담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청취하였다.

□ 원 장관은 상담센터에 접수되는 다양한 주거관련 상담 내용과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을 전해 듣고, “국민들의 목소리가 사장되지 않고,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담센터-LH-국토부 간 소통을 통해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것”을 강조하였다.

○ 상담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, 문의 전화가 월 평균 50만건에 달한다고 알고 있다면서, “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응대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상담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피겠다”고 밝혔다.

□ 아울러, “중장기적으로는 상담센터가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전달통로로서 현재의 정책을 전달하고,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주거복지 프로젝트 관리 기관으로 나아가야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□ 한편,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센터 등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, 공공분양,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서비스 관련 문의는 LH 마이홈콜센터(1600-1004)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.

2023. 11. 30.

국토교통부 대변인